

관광벤처 공모 지원금 증액

문체부-관광공사,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올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서 85억원 규모로
120개 기업 선정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관광벤처사업 지원금을 증액해 공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을 모두 늘려 역대 최대인 총 8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120개 기업을 선정해 지난해 평균 지원금인 2000만원보다 2배 가량 늘린 평균 4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나눠 기업을 발굴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성장관광벤처 부문',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재도전 부문'에 각각

참가할 수 있다.
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 3점, 청년 창업자(1980년 3월 3일 이후 출생자·만 39세 미만)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해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독려한다. 두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총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무형 자산취득비, 재료비, 광고 선전비뿐만 아니라 사업화 자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항목을 확대해 기업의 운용 자율성을 개선한다.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상담도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비 관광벤처는 기존 2회에서 6회로 늘어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초기 관광벤처는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심화 상담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공모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 오후 2시까지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한을 당초 예정일인 6월 24일보다 한 달가량 단축해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크게 앞당기도록 했다.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포스터

다만 성장벤처 부문의 경우 서류 발표, 심사에 이어 현장 심사도 진행되는 만큼 당초 일정대로 6월 중 협약을 체결한다. 심사에서는 사업의 창의성과 시장성, 사업화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재도전 부문에서는 기존 실패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로 판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활용해 관광벤처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출판산업, 어떻게 활성화할까?

문체부-진흥원, 연구논문 현상 공모
출판 관련, 어떤 주제로도 응모 가능
최대 3인까지 대학생·교사 등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이 출판 정책 및 산업 현안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을 현상 공모한다.
진흥원은 2일부터 '2020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판 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신진 연구인력 발굴을 통한 출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이번 공모전은 '출판 산업에 관한 제반 연구'를 주제로 연다. 출판·유통·서점·도서관·독서·독자 등 출판과 관련된 어떤 주제라도 응모할 수 있다. 참가자도 대학생 및 연구자, 교사 등 출판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최대 3인까지 공동연구도 가능하다.
학생 부문은 500만원, 일반 부문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논문 접수 일정은 이날부터 8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참가방법 및 신청서 양식은 출판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발표회는 오는 11월 열린다. 수상작은 출판 정책 및 진흥원 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향후 자료집으로 발간된다. /뉴시스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포스터

전주문화재단, 6일부터

예술지원사업 통합 공모

전주문화재단은 전주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 지원 실행을 위한 2020년 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전주시민의 문화 활동 진흥과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전주 백인의 자화상 추천 공모, 시각예술 지원사업, 공연예술 지원사업,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사업 등 모두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지속사업 중 하나인 전주 신진예술가 7기 지원사업은 전주 문화예술의 미래의 동력을 확보하고,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에 앞장선다.
또 시민의 창의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콘텐츠 창의뱅크' 사업을 통해 전주를 위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
재단 김성균 사무국장은 "예술하기 좋은 곳! 문화로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확보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보장, 공공의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표현의 기회와 개방성을 확대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 지원사업과 함께 더 섬세한 서비스와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창작 무대 진출 및 홍보의 기회를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063-283-9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우수 공예품 구입,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물' 통해
판매서비스 실시... 카드 결제 등 가능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 '명인물'을 통해 더욱 편리한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위·수탁 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의 임시 운영 기간을 통해 '명인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정식 서비스에 나선다.
전주의 우수 공예품은 물론 전국의 다양한 공예품과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제작한 우수 수공예품들을 클릭 한 번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명인물에 등록된 상품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입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상품들로, 택배 배송이 쉬운 상품이 먼저 업로드된다.
또 시즌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공예품을 비롯해 이달부터 진행될 입점상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상품도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될 경우 공예가와 장인들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 증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수공예 상품의 온라인 유통 거점 확보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품 구매는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배송은 구매 시점 기준으로 보통 1~2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명인물 상품들은 기계로 찍어내는 기성품들과 달리 작가 개개인이 손수 제작하는 수공예 상품의 특성상 같은 제품이라 해도 색과 모양이 다른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량구매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재고, 소요 일 등을 따져보는 것은 필수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명인물' 또는 '전주공예품전시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